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경기도 군포시 #시설공사비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우리마을 작은도서관은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인 산본 1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담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인, 반지하의 작은 교회인 창대한교회가 2006년부터 교회 내에 조그맣게 도서실을 운영해오다 2010년 현재의 공간을 매입하여 작은도서관을 설립, 개관하였습니다. 처음 도서실을 운영할 때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부모, 조부모로부터 밀접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책임기와 학업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마을’이라는 이름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동네의 공공도서관이었다.”라는 빌 게이츠의 말과 우리 도서관이 위치한 산본1동 지역에 대한 애정과 섬김의 표현으로 실무자인 제가 제안하고 관장님이 좋다고 하셔서 지은 이름입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우리마을 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 공사 전



▲ 창호 공사 중



▲ 창호 공사 중



▲ 전기 공사 중

긴급지원119사업 발표가 날 때까지 무척 긴장되고 떨렸으며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뻐지요. 저는 도서관 실무를 여러 해 맡아오고 있었지만 어디다 제안서를 내거나 공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적어서 많이 서툽니다. 그러다 다른 사업들이 대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일 중심이라면 이 사업은 시·도의 보조금으로는 업무를 낼 수 없었던 시설보수와 같은 것도 할 수 있음을 알고 한 번 도전해 보기로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하고 제안서를 냈습니다. 도서관이 속한 건물 자체가 노후하고 알루미늄 샷시로 된 창문은 방음, 방한의 부족은 물론 여닫기도 불편하고 무거워서 아침저녁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정말 부담스런 일이었거든요. 어두운 열람실도 늘 고민이었고요.

공사를 진행하며, 창문 공사와 전기 공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던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동네의 관련 업체를 찾아다니고 견적을 받는 과정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한된 공사비로 좋은 재료를 사용하려다 보니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더구나 비교적 프로그램이 적은 기간을 이용해서 하려다보니 더욱 때 하게 되어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좋은 업자를 만나게 되어 공사가 순조롭게, 빨리 끝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친 전기 공사와 창문 공사가 완료된 후, 도서관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열람실이 환해지고 더 이상 자꾸 전구가 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참 좋습니다. 창문공사로는 정말 도서관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나 할까요. 처음 저희 도서관 창문에는 창 전면에 썬팅지가 붙어있어서 바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전체 창에 도서관 이름이 크게 쓰여 있었으니 외부에서 볼 때 도서관임이 확 드러났었죠.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니 바깥 풍경이 보이는데 여름이었으니 녹색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다들 너무 좋다며 한 마디씩 할 때 정말 뿌듯하고 기뻐요. 3층이다 보니 내부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생기는 불편함도 거의 없고요.

시야가 시원하게 탁 트인 곳에서 책을 읽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너무들 좋아해 주셔서 정말 잘했구나 싶



▲ 공사 후

우리마을 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답니다. 다들 썬팅하지 말고 이대로 바깥이 보이도록 하자고 말씀 해주셨지요. 애초에는 창문공사가 끝나면 다시 광고업체에 의뢰하여 썬팅지를 붙이려던 계획을 수정해서 도서관임을 알리는 낱글자만 최소한으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외부에다 도서관을 알리는 안내판을 좀 더 보완하구요. 그러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맨 유리로만 두는 것은 너무 썰렁해보여서 블라인드를 달았습니다. 얼마나 단정하고 아늑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마을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도서관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 자신도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되었다는 자체도 자랑스럽고 제가 도서관에 도움이 되고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뿌듯함이 저를 더 열심히 하게 하지요. 2018년에도 더 열심히 할 힘이 생겼습니다.

2018년에도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좋은 책을 구비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잘 꾸며진 환경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빌리려고 오는 이용자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도서관 홍보에 힘을 계획합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활동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도서관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 느끼는 감격과 보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책 보는 것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어린이, 자녀의 학업과 독서에 대한 조언에 고마워하는 젊은 엄마, 새로운 수업을 접하며 좋아하는 이용자들 때문에 힘들다 하면서도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것이지 싶습니다.

